

# 이견 노출에 대한 인식이 후보 지지 변경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윤지성 |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이견 노출 상황에서의 유권자의 인식이 후보 지지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설득의 관점에서 당파성을 가진 개인이 대화 네트워크에서 이견 노출을 경험했을 때 설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연결망 속의 개인에 대한 이견 노출의 효과가 응답자의 지지후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견 노출 상황에 놓여있는 유권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당파적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대통령 선거, 투표 선택, 이견 노출, 사회적 맥락,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

## I. 들어가며

2016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시위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압도되어 그 과정의 중요성을 잊기 쉽다. 이 사건이 정치사적으로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정치 혐오가 만연했던 한국 정치에서 국민들이 다시금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적 무력감을 떨치고 평화적 촛불 시위라는 자신들의 의사 표현으로 4·19에 비견될 수 있는 정치적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치적 설득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단체들의 탄핵반대 집회는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보도내용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가 서로 대립될 때, 개인들이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가장 나은 체제로 평가 받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을 때, 과연 쉽게 설득당하는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기존 견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선택적 노출’과 ‘태도 극화’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Festinger 1957; Klapper 1960; Lord et al. 1979; Stroud 2010). 그렇다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심의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기꺼이 바꾸는가? 본 연구는 정치적 설득의 관점에서 당파성을 가진 개인이 대화 네트워크에서 이견 노출을 경험했을 때 설득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연결망 속의 개인에 대한 이견 노출의 효과가 응답자의 지지후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이견 노출 상황에 놓여있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닌, 개인의 당파적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우리는 심의 민주주의를 떠올릴 때, 공론장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개인 대 개인 관점의 이미지로 상정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의 개인은 사회적 연결망

(social network) 속에서 존재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공동체 구성원 등 다양한데,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모나 직장동료와 같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결망 속에 위치한 개인은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동질적인 연결망에서만 존재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연결망에서 이견에 노출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한다. 이견 노출이 일어나는 연결망이 민주주의적 함의로 볼 때, 훨씬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견 노출이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정치참여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Huckfeldt 2001; Huckfeldt and Sprague 1987, 1995; Huckfeldt et al. 2002, 2004; Huckfeldt and Mendez 2008; Mutz 1998, 2002a, 2002b, 2006; Mutz and Mondak 2006; McClurg 2006a, 2006b; Jang 2009). 이러한 이견 노출의 메커니즘은 컬럼비아 학파의 교차압력 개념과도 맞닿아있다. 컬럼비아 학파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집단에 속해있는 개인들이 투표 결정에 있어서 각 집단에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받는 것을 교차압력이라고 보았다(Lazarsfeld et al. 1944). 이러한 교차압력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부터의 사회적 압력이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투표선택에 있어서도 불확실해서 투표선택 시기를 늦추게 되며, 정치참여도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그들은 교차압력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입장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에 이용했는데, 어떤 사회적 입장의 정치적 강도가 더 클수록 교차압력 상황에 처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그 입장의 사람들의 투표행태와 닮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Berelson et al. 1954). 그리고 교차압력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이 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결심하기보다는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차압력이 커질수록 투표참여가 감소하고 투표후보 결정시기가 지체된다는 컬럼비아 학파의 대표적 주장은 대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불일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차압력 개념을 새롭게 이견 노출로 재구성해내었다(Mutz 2002a, 2006). 머츠는 이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유권자 개인의 내적으로 상충적 태도(intra-personal ambivalence)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회피(inter-personal conflict avoidance)로 나누고, 상충적 태도는 갈등 회피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잊혀져 있던 컬럼비아 학파의 교차압력 가설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한국에서 이견 노출이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드물게 있으며, 그 대상이 소셜 네트워크(SNS)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서 성격이 다른지 살펴본 본 것이거나(박영환·이상우 2012; 조성대 2013; 이상신 2013), 머츠의 결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노성중·민영 2009; 정효명 2011; 이상신 2015). 더구나 이견 노출이 정치적 설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특성상 설문조사를 디자인하거나 실험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정치적 설득은 그 개념을 고안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이견 노출 네트워크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성공적인 연구는 신클레어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Sinclair 2012). 신클레어는 미국 국가선거 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의 설문과 네트워크 설문을 결합해서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지지자 네트워크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포착해내었는데, 이러한 설득은 가족이거나 가장 자주 대화하는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가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클레어의 연구에서는 이견 노출의 효과가 민주당 유권자나 공화당 유권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당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동일한 태도를 보일까? 이에 대해서 허펠트(Huckfeldt and Sprague 1987; 1995)의 연구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수 집단의 입장을 민감하게 인식하지만 다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소수집단의 입장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권자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제시했다. 신클레어의 연구는 유권자들의 특성을 동일하게 가정함으로써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당파성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설득의 관점에서 당파성을 가진 개인이 대화 네트워크에서 이견 노출을 경험했을 때 설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연결망 속의 개인에 대한 이견 노출의 효과가 응답자의 지지후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가설:** 지지후보 변경에 대한 이견 노출의 효과는 자신의 지지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III. 데이터와 변수

#### 1.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온라인 패널(panel)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동 센터의 설문은 3회에 걸친 온라인 패널 조사<sup>1)</sup>로서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2년 9월과 10월에 걸쳐 패널을 모집해서 만19세 이상의 성인 약 2,300명 정도를 표집(sampling)했다. 이 중 약 1,300여 명은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전국 대표 패널이었고, 1,000여 명은 트위터 사용자 패널이었다.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가자는 1,843명이며, 최종패널 유지율은 약 81.9%이다.<sup>2)</sup>

#### 2. 종속변수: 지지후보 변경

동 센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설문조사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만이 남아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의 응답과 3차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의 응답을 사용해서, 두 설문 사이에서 지지후보의 변경이 없으면 0, 지지후보의 변경이 있으면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했다. 동 센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점인 2012년 10월 31일~11월 2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제3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의 시기로서, 1차 설문조사에서 지지후보를 물어본 문항에서의 응답이 박근혜 후보 31.1%, 문재인 후보 31.1%, 안철수 후보 36.3%로 나타났다.<sup>3)</sup> 한편, 동 센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설문에서는 문재인 후

1) 1차 패널 조사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차 패널 조사는 12월 7일부터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차 패널 조사는 선거후 설문조사로서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2) 1차 조사 응답자는 2,251명, 2차 조사 응답자는 1,921명, 3차 조사 응답자는 1,843명이며, 최종 패널 유지율은 일반 패널이 약 82.8%, 트위터 패널이 약 80.6%였다.

3) 여기서 후보별 지지율은 1차 설문조사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

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문재인 후보 대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대 박근혜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3차 대결이 아닌 양자대결을 가정한 후속설문이 있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출마를 포기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이었다. 이미 주지하듯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권자 본인의 자의와 관계없이 지지후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지후보의 변경은 제3의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선거과정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차 설문에서 지지후보를 물어본 문항과 대통령 선거 직후의 3차 설문에서 실제 응답자의 투표선택을 비교해서 지지후보의 변경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즉,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후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차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선택을 지지후보 변경으로 보는 것보다는 1차 설문에서 문재인 후보 대 박근혜 후보의 양자구도 상황을 가정한 설문을 사용함으로써 지지후보의 변경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표 1>은 1차 설문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베이스로 한 3자구도 상황으로부터 응답자의 최종 투표선택으로의 지지후보 변경과 1차 설문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구도를 가정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최종 투표선택으로의 지지후보 변경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의 3자구도를 베이스로 지지후보 변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지후보를 변경한 응답자가 무려 41.7%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택은 모두 지지후보 변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차 설문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36.3%에서 투표에 기권한 유권자들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비해서 1차 설문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구도를 상정하여 지지후보 변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지후보를 변경한 응답자가 9.4%로 나타나서 삼자구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지지후보 변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지후보 변경의 개념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선

---

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과 위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문항인 “다음의 세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표 1〉 3자구도와 양자구도에서의 지지후보 변경의 비교

지지후보 변경	3자구도 베이스	양자구도 베이스
변경 없음	1,003 (58.3%)	1,472 (90.6%)
변경	717 (41.7%)	152 (9.4%)
합계	1,720	1,624

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은 지지후보 변경을 과장되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응답자의 자발적인 지지후보 변경만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자구도를 상정한 설문을 베이스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 3. 독립변수: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egocentric social network)<sup>4)</sup>에서 불일치 정도

동 센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설문은 기존의 설문조사들과는 달리 사회 연결망에 대한 측정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3차에 걸친 패널조사 중에서 선거 전에 이루어진 2회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사회 연결망을 측정했으며, 이것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적 대화 상대방에 관한 것이다. 사회 연결망 설문 문항은 응답자가 정치문제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과 2번째로 많이 대화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적고, 그들과의 대화빈도, 대화 주도권 여부, 의견 불일치 여부, 대화 상대방의 정치지식 인식 정도, 대화 상대방의 선호후보를 측정했다.<sup>5)</sup> 그리고 독립변수

4) 본 연구에서의 사회 연결망 측정은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문 응답자의 대화 상대방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egocentric social network)으로 볼 수 있다.

5) 응답자에게 정치적 대화 상대방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니셜을 적게 한 이유는 익명성을 부여함으로써 답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답자가 대화 상대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보다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표 2〉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정도 변수의 코딩값 예시

응답자의 지지후보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선호후보	2번째로 많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선호후보	변수값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0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1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1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2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0
문재인	문재인	박근혜	1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1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2

의 측정은 동 센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설문에서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의 응답을 사용했다. 설문 응답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박근혜, 문재인)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선호후보, 그리고 응답자가 2번째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선호후보가 모두 일치하면 불일치정도=0,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다른 두 사람이 모두 선호하지 않으면 불일치정도=2로 코딩하여 불일치 정도에 따라 0, 1, 2의 값을 갖는 변수를 생성한다. 독립변수인 ‘자아중심적 사회연결망에서 불일치정도’ 변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답자의 선호후보가 박근혜 후보인 경우와 문재인 후보인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를 〈표 2〉로 구성해서 나타냈다.

위의 방법으로 생성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3〉으로 나타내었고, 이것을 다시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와 문재인인 경우로 양분했다. 즉,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의 불일치 정도와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의 불일치 정도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지지후보별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의 분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를 포함해서 3명의 선호후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68.3%이며, 나와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방 2명의 지지후보가 나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6.5% 정도로 나타난다.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는 3명의 선호후보가 모두 박근혜로 일치하는 경우가 62.5%이고, 나를



〈표 3〉 응답자의 선호후보별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

불일치 정도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응답자 전체
모두 일치	475 (62.5%)	805 (72.3%)	1,280 (68.3%)
중간	221 (29.1%)	251 (22.5%)	472 (25.2%)
불일치	64 (8.4%)	58 (5.2%)	122 (6.5%)
N	760 (100%)	1,114 (100%)	1,874 (100%)

Pearson's  $\chi^2 = 21.16^{***}$  ( $p < .01$ )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8.4%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는 3명의 선호후보가 모두 문재인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72.3%이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를 선호하는 경우가 5.2%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가 응답자의 선호후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21.16으로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비교해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의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보다 대화 네트워크에서 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동종 선호(homophily)의 경향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와 후보에 대한 지지 변경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의 불일치 정도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변경한 사람들과 일관된 후보선호를 보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4〉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경과의 관계

	변경 없음	후보 변경	합계
모두 일치	1,034 (93.2%)	76 (6.8%)	1,110 (100%)
중간	344 (87.8%)	48 (12.2%)	392 (100%)
불일치	76 (76.8%)	23 (23.2%)	99 (100%)
합계	1,454	147	1,601

Pearson's  $\chi^2 = 35.11^{***}$  ( $p < .01$ )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선호후보가 모두 일치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이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6.8%에 불과한 반면에, 응답자 본인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선호후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이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가 지지후보 변경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35.11로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지지후보를 변경한 응답자 집단과 지지후보를 변경하지 않은 응답자 집단 사이에서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응답자가 본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 즉 내가 주로 대화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가 주변 사람들의 견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컬럼비아 학파의 기존논의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 통제변수: **성별, 학력, 연령대, 소득, 지역변수(영남, 호남, 충청), 이념**
- 성별: 0=남성; 1=여성
-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 연령대: 2=20~29세; 3=30~39세; 4=40~49세; 5=50~59세; 6=60세 이상
- 소득을 묻는 문항은 연령 문항처럼 개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와 같이 소득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20%씩 5개의 구간으로 정확히 나누어 코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표 5>에 예시한 것처럼 대략 20%씩 구분지어 조작화했다.
- 영남지역: 1=대구, 경상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호남지역: 1=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충청지역: 1=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 유권자  
0=기타지역 유권자
- 이념: 자신의 이념을 스스로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해서 진보=0; 중도=5; 보수=10인 11점 척도로 나타냈다.

#### IV. 분석결과

지지후보 변경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통제변수로 성별, 학력, 연령대, 소득, 지역변수, 이념을 넣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서 <표 6>에 그 결과를 정리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들의 자

<표 5> 응답자 소득구간 코딩값 예시

응답자 소득구간(코딩값)	빈도	퍼센트
최하위(1)	552	24.8%
하위(2)	456	20.5%
중간(3)	447	20.1%
상위(4)	482	21.6%
최상위(5)	292	13.1%
합계	2,220	100%

〈표 6〉 지지후보 변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지지후보 변경	전체 응답자		박근혜 후보 지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	
	불일치 정도	0.70*** (0.13)	0.71*** (0.13)	0.08 (0.19)	0.11 (0.19)	1.08*** (0.19)
대화빈도		0.06 (0.12)		0.07 (0.18)		-0.02 (0.19)
대화주도여부		0.20 (0.14)		0.26 (0.19)		0.13 (0.22)
상대방의 정치지식 인식수준		-0.14 (0.16)		-0.49** (0.24)		0.32 (0.25)
여성	0.50*** (0.18)	0.46** (0.18)	0.23 (0.26)	0.18 (0.26)	0.72*** (0.27)	0.65** (0.28)
학력	0.02 (0.13)	0.02 (0.13)	0.10 (0.18)	0.09 (0.18)	-0.05 (0.20)	-0.04 (0.20)
연령	-0.07 (0.08)	-0.06 (0.08)	-0.14 (0.11)	-0.14 (0.11)	0.01 (0.12)	0.00 (0.12)
소득	-0.05 (0.07)	-0.05 (0.07)	-0.04 (0.10)	-0.01 (0.10)	-0.11 (0.10)	-0.13 (0.11)
영남	0.03 (0.21)	0.03 (0.21)	-0.09 (0.29)	-0.10 (0.29)	-0.11 (0.33)	-0.11 (0.34)
호남	0.09 (0.32)	0.10 (0.32)	1.08** (0.47)	1.06** (0.47)	-0.65 (0.55)	-0.67 (0.55)
충청	0.48* (0.29)	0.47 (0.29)	0.84** (0.38)	0.90** (0.39)	0.05 (0.47)	0.10 (0.47)
이념	0.03 (0.05)	0.03 (0.05)	-0.28*** (0.07)	-0.29*** (0.07)	0.32*** (0.08)	0.32*** (0.08)
상수	-2.68*** (0.50)	-2.81*** (0.55)	-0.27 (0.73)	-0.14 (0.80)	-4.29*** (0.79)	-4.76*** (0.86)
N	1,586		645		941	
Pseudo-R <sup>2</sup>	0.04	0.04	0.08	0.09	0.12	0.13

주: \* p < 0.1, \*\* p < 0.05, \*\*\* p < 0.01

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를 독립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은 나의 대화 네트워크에서 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선호후보가 같다고 인식하면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지만, 내가 선호하는 후보와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선호후보가 다르다고 인식한다면 선거기간 중에 지지후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머츠가 주장하는 갈등 회피(conflict avoidance)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보여서 머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통제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성별만이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선거기간 중에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의미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 지지자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로 나눠서 다시 분석을 시도했다.

설문 응답자를 지지하는 후보별로 나눠서 분석했더니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지지후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응답자가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후보가 박근혜일수록 갈등 회피 메커니즘으로 지지후보를 박근혜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머츠가 주장하는 갈등회피 메커니즘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들 중에서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이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인 경우에 박근혜 후보로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후보로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념이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흥미로운 것이다. 성별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서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의 영향력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영향력은 여성 유권자들의 박근혜 후보로의 지지변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들 중에서 이념과 호남지역, 충청지역 변수만이 통계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지지후보를 박근혜 후보로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의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로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자신의 대화 네트워크에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지역변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다른 사회 연결망 변수들인 정치적 대화빈도, 대화시 주도여부, 대화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정도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불일치 정도만 독립변수로 넣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자신의 대화 네트워크의 불일치 정도가 지지후보 변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정치적 대화빈도, 대화시 주도여부, 대화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수준을 통제해도 사회연결망 변수들 중에서는 불일치 정도만이 지지후보 변경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 불일치 정도는 지지후보 변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대화하는 상대방의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 사회연결망 변수 중에서 불일치 정도만이 지지후보 변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서는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개체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 변수가 기초로 하는 제2차 설문 응답자 1,586명 중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645명(40.7%)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941명(59.3%)인데, 선거기간 내내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숫자가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지후보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 변수와 지지후보 변수를 넣고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넣어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통제변수로 넣었던 연령변수가 지지후보별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후보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다. 참고로, 지지후보 변수는 2차 설문 조사에서 지지후보를 물어본 문항<sup>6)</sup>을 사용하여 더미 변수로 코딩을 했다.

지지후보 변수: 0=박근혜; 1=문재인

〈표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델 1은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과 연령과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해서 분석한 것이다. 모델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불일치 정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일치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는 불일치정도 변수의 계수가 0.1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는 불일치정도의 계수가 1.18이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응답자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더 많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한다고 해도 응답자의 지지후보 변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의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 6〉에서 보았듯이 응답자가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과의 견해 차이에 대한 인식 정도가 후보에 대한 지지변경에 있어서 지지후보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연령과 지지후보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후보 지지 변경 여부에 있어서 지지후보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령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효과도 후보 지지 변경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모델 1의 분석결과는 지지후보 변수를 사용하여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지지후보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

6) 2차 설문조사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항과 위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문항인 “다음의 두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표 7〉 상호작용항을 사용한 지지후보 변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지후보 변경	모델 1	모델 2	모델 3
불일치 정도	0.18 (0.18)	0.54** (0.26)	0.33 (0.28)
불일치*지지후보	1.00*** (0.26)		1.86*** (0.40)
지지후보	-1.98*** (0.61)		-3.79*** (0.80)
불일치*정당일체감		0.25 (0.33)	-1.01*** (0.39)
정당일체감		-1.42* (0.76)	1.63*** (0.42)
연령	-0.20* (0.11)	0.04 (0.13)	-0.35** (0.14)
연령*지지후보	0.20 (0.16)		0.44** (0.20)
연령*정당일체감		-0.42** (0.20)	
여성	0.50*** (0.18)	0.55** (0.22)	0.54** (0.23)
학력	0.03 (0.13)	0.09 (0.16)	0.09 (0.17)
소득	-0.05 (0.07)	0.04 (0.08)	0.02 (0.08)
영남	-0.07 (0.22)	-0.13 (0.28)	-0.19 (0.28)
호남	0.32 (0.33)	0.07 (0.39)	0.29 (0.40)
충청	0.45 (0.29)	0.54 (0.34)	0.44 (0.35)
이념	-0.05 (0.05)	0.08 (0.06)	0.05 (0.07)
상수	-1.17* (0.60)	-2.26*** (0.82)	-1.98** (0.80)
N	1,586	1,145	1,145
Pseudo-R <sup>2</sup>	0.07	0.05	0.10

주: \* p < 0.1, \*\* p < 0.05, \*\*\* p < 0.01



지만, 지지후보 변수는 결국 정당일체감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면 지지후보 변수는 정당일체감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는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이 후보요인과 과연 분리가 되는지, 혹은 상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당일체감 변수가 이러한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당일체감 변수를 분석에 추가했다.

정당일체감 변수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물어본 문항<sup>7)</sup>을 사용하여 더미변수로 코딩했다.

정당일체감 변수: 0=새누리당; 1=민주통합당

〈표 7〉의 모델 2는 모델 1에서 사용했던 지지후보 변수 대신에 정당일체감 변수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 연령과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 대신에 불일치정도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 연령과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로 사용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불일치 정도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일치 정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지지정당이 새누리당인지, 민주통합당인지와 상관없이 응답자가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후보 지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당일체감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의 계수는 0.0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연령과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4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인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이 지지후보 변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통합당인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후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1차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다음 중 어느 정당입니까?” 문항과 위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문항인 “다음 정당 중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지지후보 변수를 사용한 모델1과 정당일체감 변수를 사용한 모델2를 비교해 볼 때, 모델1에서는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반해, 모델2에서는 불일치 정도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불일치 정도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지지후보 변수가 불일치 정도 변수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불일치 정도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즉, 지지후보 변수와 정당일체감 변수는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며, 연령 변수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모델1에서는 연령과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델2에서는 연령과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지지후보 변수와 정당일체감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해서 분석한 것이 모델3이다. 모델3은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과 불일치 정도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모두 포함하고, 연령변수와와의 상호작용항을 지지후보 변수로 설정한 모델이다.

모델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불일치 정도와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 불일치 정도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연령과 지지후보 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불일치 정도 변수와 관련된 상호작용항이 2개이고, 지지후보 변수와 정당일체감 변수가 모두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4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 1)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갖는 경우: 불일치 정도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정치적 견해가 응답자가 보기에 얼마나 다른지 여부는 응답자의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 불일치정도의 계수가  $-0.68$ 이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데, 이것은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는 지지후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 불일치 정도 계수는  $2.19$ 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이것을 해석하면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는 지지후보

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 불일치 정도 계수는 1.18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며 이것을 해석하면,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는 지지후보 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4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지지후보 변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만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이며,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나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에는 지지후보 변경을 하지 않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진 경우에는 불일치 정도 변수가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래의 <표 8>은 지지후보 변수와 정당일체감 변수 사이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4가지 경우에서 소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55명,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90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볼 수 있으나 결코 예외적인 경우로서 적은 숫자로 치부될 정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즉, 이 두 경우 모두 충분히 의미 있는 크기의 집단으로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졌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원래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동조해서 박근혜 후보로 지지변경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졌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표 8> 지지후보 변수와 정당일체감 변수의 교차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N
박근혜	480	90	570
문재인	55	662	717
N	535	752	1287

고 인식할수록 더욱 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해서 지지후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서로 상반되지만 처해있는 상황은 같다고 볼 수 있는 두 집단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개인의 당파적 성향이 이견 노출 정도와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는 진보적인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는 보수적인 개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두 집단에 대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통합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졌으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후보 변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을 가졌으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인식하든 상관없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견해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즉, 이견 노출에 처한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닌, 개인의 당파적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표 7>의 모델 3에서 연령변수와 지지후보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박근혜인 경우 연령변수의 계수는 -0.35이며,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문재인인 경우 연령변수의 계수는 0.09이다. 즉,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하지 않지만, 응답자의 지지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지지후보 변경이 당파적으로 차이를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주장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컬럼비아 학파의 라자스펠트 등과 머츠가 주장하는 대로 불일치정도는 투표후보 결정시기에 영향을 미치는데(Lazarsfeld et al. 1944; Berelson et al. 1954; Mutz 2002a, 2006), 이 경우에도 지지후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지후보에 따라 자신의 대화 네트워크의 불일치정도가 투표후보 결정시기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종속변수인 투표후보 결정시기는 동 센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찍을 후보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다?”의 응답을 변수로 사용했다. 이 설문의 응답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확정(8월 20일) 이전”부터 “대선 후보 3차 토론(12월 16일) 이후”까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설문의 분석을 위해서 서열 로

〈표 9〉 투표결정시기에 대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투표결정시기	전체 응답자	박근혜 후보 지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
불일치 정도	0.29*** (0.07)	0.31*** (0.11)	0.32*** (0.10)
여성	0.14 (0.09)	0.08 (0.15)	0.22* (0.12)
학력	-0.08 (0.06)	-0.07 (0.11)	-0.12 (0.08)
연령	-0.23*** (0.04)	-0.20*** (0.06)	-0.13** (0.05)
소득	-0.01 (0.03)	-0.05 (0.06)	0.00 (0.04)
영남	-0.30*** (0.11)	-0.40** (0.16)	-0.01 (0.15)
호남	0.22 (0.15)	0.16 (0.36)	0.01 (0.18)
충청	-0.06 (0.17)	-0.32 (0.29)	0.08 (0.22)
이념	-0.16*** (0.02)	-0.23*** (0.04)	0.11*** (0.03)
N	1,697	694	1,003
Pseudo-R <sup>2</sup>	0.02	0.03	0.01

주: \* p < 0.1, \*\* p < 0.05, \*\*\* p < 0.01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이 분석의 결과를 〈표 9〉에 정리했다.

퀵리비아 학파가 주장하는 대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불일치정도가 높아질수록 투표후보 결정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와 문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불일치정도가 높아질수록 투표후보 결정시기가 늦어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변수와 지역변수, 이념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결정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영남지역의 응답자인 경우에 투표결정시기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영남지역의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념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인 경우에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투표결정시기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투표결정시기가 늦어지는 차별적 현상이 나타난다. <표 8>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상관 없이 컬럼비아 학파의 이론적 논의에 제대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후보 변경에 대한 불일치 정도 변수의 당파적 영향력은 특이하거나 잘못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V. 나가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비교해서 자아중심적 사회 연결망에서 불일치 정도의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보다 대화 네트워크에서 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선호후보가 같다고 인식하면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지만, 내가 선호하는 후보와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선호후보가 다르다고 인식한다면 선거기간 중에 지지후보를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회적 압력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머즈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에서 불일치정도가 높아질수록 투표후보 결정시기가 늦어지며, 이것은 컬럼비아 학파의 이론적 논의에 부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응답자의 지지 후보가 박근혜인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지지후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응답자가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응답자의 지지 후보가 문재인인 경우에는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의 후보가 박근혜일수록 갈등회피 메커니즘으로

지지후보를 박근혜로 바꾸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응답자를 지지하는 후보별로 나눠서 분석했더니 머츠가 주장하는 갈등회피 메커니즘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응답자의 자주 대화하는 상대방들과의 견해 차이에 대한 인식 정도가 후보에 대한 지지변경에 있어서 지지후보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견 노출에 처한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닌, 개인의 당파적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지후보 변수가 불일치 정도 변수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정당일체감 변수는 불일치 정도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지후보와 정당일체감은 별개의 것으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적 설득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 대인 연결망(interpersonal network)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 또한 같이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유권자의 당파성이 선거 주식시장의 예측 실패에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조남운 외 2016), 앞으로 유권자의 당파성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후속 연구들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7년 1월 1일

심사일: 2017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3일

## 참고문헌

- 노성중·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한국언론학보』 53집 3호, 173-97.
- 박영환·이상우. 201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숙의,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8집 3호, 61-92.
- 이상신. 2013. “18대 대선과 태도극화.” 『한국정당학회보』 12집 1호, 217-42.
- \_\_\_\_\_. 2015. “소셜미디어와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한국정치연구』 24집 1호, 169-99.
- 정효명. 2011. “미디어와 대인토론의 정치적 태도변화에 대한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5집 5호, 243-72.

- 조남운·박원호·한규섭·안도경. 2016. “선거예측시장에서의 당파적 거래: 2012 대선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 『한국정치연구』 25집 3호, 197-223.
- 조성대. 2013.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교차성과 정치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집 2호, 157-85.
- Berelson, Bernard R., William N. McPhee, and Paul F. Lazarsfeld.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estinger, Leon.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Peterson.
- Huckfeldt, Robert. 2001. “The Social Communication of Political Experti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 2, 425-38.
- Huckfeldt, Robert, Paul E. Johnson, and John D. Sprague. 2002. “Political Environments, Political Dynamics, and the Survival of Disagreement.” *Journal of Politics* 64, No. 1, 1-21.
- \_\_\_\_\_. 2004. *Political Disagreement: The Survival of Diverse Opinions within Communication Networ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ckfeldt, Robert, and Jeanette Morehouse Mendez. 2008. “Moths, Flames, and Political Engagement: Managing Disagreement within Communication Networks.” *Journal of Politics* 70, No. 1, 83-96.
- Huckfeldt, Robert, and John D. Sprague. 1987. “Networks in Context: The Social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No. 4, 197-216.
- \_\_\_\_\_. 1995. *Citizens, Politics, and Social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fluence in an Election Campa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g, Seung-Jin. 2009. “Are Diverse Political Networks Always Bad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difference, Alienation, and Political Disagreement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7, No. 5, 879-98.
- Klapper, Joseph T.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Glencoe: Free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rd R.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 Lord, Charles G., Lee Ross, and Mark R. Leppe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No. 11, 2098-109.
- McClurg, Scott D. 2006a. “The Electoral Relevance of Political Talk: Examining



- Disagreement and Expertise Effects in Social Networks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No. 3, 737-54.
- \_\_\_\_\_. 2006b. “Political Disagreement in Context: The Conditional Effect of Neighborhood Context, Disagreement and Political Talk on Elector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28, No. 4, 349-66.
- Mutz, Diana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2a.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No. 4, 838-55.
- \_\_\_\_\_. 2002b.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No. 1, 111-26.
- \_\_\_\_\_.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tz, Diana C., and Jeffery J. Mondak. 2006. “The Workplace as a Context for Cross-Cutting Political Discourse.” *Journal of Politics* 68, No. 1, 140-55.
- Sinclair, Betsy. 2012. *The Social Citizen: Peer Networks and Political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oud, Natalie Jomini.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 No. 3, 556-76.



\*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2차 패널조사(2012.12.07~12.18)

1.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① 박근혜 ▶ 문1-2                      ② 문재인 ▶ 문1-2
- ③ 이정희 ▶ 문1-2                      ④ 기타 후보 ▶ 문1-2
- ⑤ 잘 모르겠다 ▶ 문1-1                ⑥ 투표하지 않겠다 ▶ 문2

1-1. 다음의 세 후보들 중 더 끌리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 ① 박근혜                                  ② 문재인

14.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와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순서에 따라 두 명의 이니셜을 적어 주십시오. 아래의 [ ] 칸에 그 사람들의 이니셜을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 이면 ‘ㅎㄱㄷ’ 또는 ‘ㄱㄷ.’ 대화는 대면 대화, 전화, 인터넷 채팅,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상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1 순위[ ]    2 순위[ ]

15.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1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십시오.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	-------------

16. 귀하가 문항 13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치문제 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순위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답해주시요.

이 분과는 얼마나 자주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나요?	① 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일주일에 1회 이하
이 분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더 말을 많이 하는 쪽은 누구 인가요?	① 나 ② 상대방 ③ 둘이 비슷함
이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의견이 불일치하나요?	① 자주 ② 때때로 ③ 거의 없음
이 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② 보통 ③ 보통 이하
이 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박근혜 ② 문재인

\*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3차 패널조사(2012.12.20~12.27)

4.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 ① 박근혜
- ② 문재인
- ③ 박종선
- ④ 김소연
- ⑤ 강지원
- ⑥ 김순자

7.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찍을 후보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다까?

- 
- [1]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확정 (8월 20일)
  - [2]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확정 (9월 16일)
  - [3]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 (9월 19일)
  - [4] 야권후보 단일화 토론 (11월 21일)
  - [5] 안철수 후보 사퇴 (11월 23일)
  - [6] 대선 후보 1차 토론 (12월 4일)
  - [7] 안철수 후보 지지유세 시작 (12월 6일)
  - [8] 대선 후보 2차 토론 (12월 10일)
  - [9] 대선 후보 3차 토론 (12월 16일)
  - [10]

ABSTRACT

---

## The Effect of Perceiving Cross-cutting Exposure on Candidate Support Change: Evidence from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Jisung Yo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y whether the voter's perception in the cross-cutting exposure environment has an effect on candidate support change using data from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terms of political persuasion, we focus on whether the voter with partisan attitude is persuaded when he/she has experienced cross-cutting exposure in his/her discussion network. Specifically, we analyze that the effect of cross-cutting exposure on the voter embedded in his/her social network is differentiated by his/her favorite candidate.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essential role is not simp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ter's political view and his/her discussion partner's, but the social context embedded in his/her partisan predisposition when deciding whether the voter in the cross-cutting exposure environment is affected by his/her discussion partner.

**Keywords:** presidential election, vote choice, cross-cutting exposure, social context, egocentric social network